

삼성차 채권단, 유동성문제 심화로 이달중 삼성측에 채권회수 위한 소송제기

부채 2조4천500억원 및 미지급이자 1천890억원 상환문제

삼성생명 주식 평가절하로 채권단 대규모 손실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은율기자=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차부채 처리를 위해 이달중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삼성차 채권단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삼성측에 대한 이번 소송은 2조4천500억원 규모의 부채와 7월말까지 연체된 1천890억원의 이자 상환문제 등이 핵심줄기를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삼성차 채권단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위기가 불거지며 더 이상 채권회수를 유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 채권단은 법정소송이라는 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삼성측은 지난 99년 8월 삼성차 부채해결에 대한 계약서를 채권단과 체결하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삼성차 부채를 2000년 12월31일까지 채권단에 보전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때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생명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 채권단에 증여해 부채 2조4천500억원을 대체하기로 했으나 삼성생명 상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채권단과 삼성측의 대립이 시작됐다.

삼성차의 전체부채가 상환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주식이 주당 61만원 수준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침체 여파로 당초 예상가의 절반수준인 주당 30만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어 채권단측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삼성측이 기존 삼성생명 주식 출연분 외에 일체의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삼성생명 주식을 유동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어 법적소송 외에는 부채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측이 원리금은 물론 올해부터 매달 270억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를 단 한번도 상환하지 않고 있어 채권단은 물론 서울보증보험과 연계된 투신권의 유동성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변호사 선정 등 구체적인 법정대응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달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삼성차 채권단의 유동성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지금융도로 요청된 6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ul@yna.co.kr

(끝)

송고일 : 20010820

한빛특수 : 제 635 호
일 자 : 2001. 8. 30 .
수 신 : 참여연대 공동대표 귀중

제 목 :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귀 연대의 활동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재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삼성자동차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2001年度
國政監査

政務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

日 時 2001年9月18日(火)

場 所 金融監督委員會會議室

(10시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柱千 지금부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출석증인 전원에게 대해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河鍾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委員長 朴柱千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은 대답과 함께 잠시 기립하였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증인과 참고인을 구분해서 호명해 드리되 선서는 증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金正泰 주미은행장, 金商勳 국민은행장, 金秉株 합병추진위원장, 崔範樹 합병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이상은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관련한 증인입니다. 다음은 南星三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 분은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관련한 참고인입니다.

다음은 尹炳哲 우리금융그룹 회장, 嚴鐘大 광주은행장, 이상 두 분은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증인입니다. 다음은 金光植 강원랜드 사장, 이 분은 코스타 등록심사 관련한 증인입니다.

다음은 姜正元 서울은행장, 이 분은 서울은행 매각지연과 관련된 증인입니다. 다음은 魚允大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장은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만 출석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리에 제일은행장, 이 분은 제일은행 운영집행과 관련한 참고인입니다. 다음은 朴海春 서울보증보험 사장, 이 분은 서울보증보험 부실과 관련한 참고인입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金正泰 주택은행장께서 증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正泰 형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正泰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徐相變 委員 이것은 삼성측으로부터 전액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參考人 朴海春 그것은 법률적으로 삼성측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相變 委員 법적으로요?

○參考人 朴海春 예.

○徐相變 委員 보세요, 삼성차 회사채에 대한 보증 총 금액이 2조 1139억이지요?

○參考人 朴海春 예, 맞습니다.

○徐相變 委員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회사에 보증한 이유가 뭐니까?

○參考人 朴海春 당시에는 정부의 각종 신용평가기관에서 그것이 AAA로 해서 소위 삼성자동차 신용등급이 회사채 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徐相變 委員 그당시 그랬습니까? 그당시에 자체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증해 준 것이?

○參考人 朴海春 발행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徐相變 委員 그러면 삼성차 회사채를 대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參考人 朴海春 9383억입니다.

○徐相變 委員 미지급금액은 얼마지요?

○參考人 朴海春 지금 한 1조 1700억 정도 됩니다.

○徐相變 委員 삼성차 회사채 대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參考人 朴海春 이것은 지금 법률적으로 1조 1720억을 전부 저희들이 대지급책임을 무신사에다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相變 委員 그런데 삼성차 손실 6000억 원에 대해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지급 대책이 뭐니까?

○參考人 朴海春 6000억은 공적자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徐相變 委員 불가능했을 때 다른 대지급 방법이 뭐가 있어요?

○參考人 朴海春 대지급 방법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徐相變 委員 지금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 71만 6000주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參考人 朴海春 이것은 또 공적자금 6000억

달고도 한 5800억 정도를 삼성으로부터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相變 委員 삼성측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면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參考人 朴海春 예, 그것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측에서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徐相變 委員 그런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검토요구한 삼성차 대주주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금 법무법인 한미와 태평양에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參考人 朴海春 예.

○徐相變 委員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參考人 朴海春 구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徐相變 委員 삼성 李健熙 회장이 99년6월30일 삼성차 법정관리신청 기자회견 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입니다. 삼성차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朴海春 삼성 李健熙 회장께서 350만주의 삼성생명주식을 채권단에다가 도덕적 책임을 통감을 해서……

○徐相變 委員 그 채권단과 합의서 썼었지요?

○參考人 朴海春 예.

○徐相變 委員 그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지요?

○參考人 朴海春 2000년12월31일에 2조 4500억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徐相變 委員 서울보증보험이 지금 채권단과 함께 삼성측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가처분신청 및 지연이자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朴海春 준비 중에 있습니다.

○徐相變 委員 언제 할 겁니까?

○參考人 朴海春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徐相變 委員 서울보증보험은 신중하지 못한 보증업무로 인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책임을 서울보증보험이 지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參考人 朴海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徐相變 委員 이 책임은 어떻게 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될 텐데요.

○**參考人 朴海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삼성차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徐相變 委員** 나중에 다시 또 추이를 보겠습니다.

서울은행의 **姜正元** 은행장님께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서울은행은 예보에서 100% 출자한 금융기관이지요?

○**證人 姜正元** 맞습니다.

○**徐相變 委員**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관건인데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매각가치를 높이야지요?

○**證人 姜正元** 예.

○**徐相變 委員** 지금 계획대로 경영정상화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證人 姜正元**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徐相變 委員** 지금 자구이행계획 중에 주요재무비율이 모두 달성됐습니까?

○**證人 姜正元** 1/4분기, 2/4분기 모두 달성됐습니다.

○**徐相變 委員** 지금 계약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證人 姜正元** 사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급이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2급, 3급은 7월1일부터 실시 중입니다.

○**徐相變 委員** 경영진 성과급평가기준을 아직까지 설정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됩니까?

○**證人 姜正元** 그것도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작년 6월에 시작할 때는 계약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쪽에 노력을 하다가 금년 6월, 7월에 걸치서 이것도 설정을 했습니다.

○**徐相變 委員** 했어요?

○**證人 姜正元** 예.

○**徐相變 委員** 서울은행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까? 한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證人 姜正元** 사실 금년 초에는 저희가 스킴출도 짜고 그래 가지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 4월부터 현대그룹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투자분위기가 조금 약화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徐相變 委員** 도이치뱅크 캐피털파트너스 매각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예요?

○**證人 姜正元** 사실 그것은 제가 매각주체가 아니고 지금 예보가 매각주체이고 공자위 매각소위 그쪽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徐相變 委員** 풋 백 옵션 등 조건이 꽤 까다롭게 달라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證人 姜正元** 지금 협상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徐相變 委員** 예보가 지금 협상주체다 이것이지요?

○**證人 姜正元** 예.

○**徐相變 委員** 알겠습니다.

저일은행의 호리에 은행장한테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저일은행 인수 당시 풋 백 옵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參考人 호리에** 매각 당시에 주주합의서 또는 매각합의서에는 부차적으로 어떤 그런 합의서가 포함이 됐었는데요, 합의서 체결 당시에 채권들에 대한 그런 합의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徐相變 委員** 정부가 매각조건을 공개하지 말라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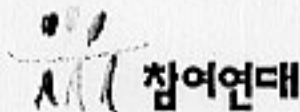
○**參考人 호리에** 체결했을 당시에 세로 구입하는 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몇 %의 채권이 지속적으로 부실될지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풋 옵션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이유는 1998년1월부터 매각할 때까지 공적자금 11.2조 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에도 기인합니다.

○**徐相變 委員** 호리에 행장이 스톡옵션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는 주식은 현재 시점으로 어느 정도 평가손익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參考人 호리에** 스톡옵션에 관한 문제는 매각합의서에 포함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스톡옵션은 2000년3월에 부여되었고 행사가격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다음 주주총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徐相變 委員** 金正泰 주먹은행장께 이주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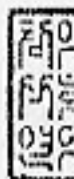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3 인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경제-2001-1001
수 신 서울보증보험
발 신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박근용 723-5052 pec@pspd.org)
제 목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금 회복 계획에 대한 질의
날 짜 2001. 10. 5. (총 1 쪽)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금 회복 계획에 대한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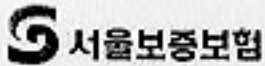
1.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로 인해 귀사가 입은 손실의 회복 계획과 관련하여 귀사의 박해춘 사장께서는 지난 9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귀사의 박해춘 사장께서는 '삼성측을 상대로 손실금 지급을 요청하는 가치분신청과 지연이자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박해춘 사장께서는 '손실금 지급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참여연대는 위 박해춘 사장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귀사가 밝힌 법적 조치의 추진 일정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과, 둘째, 구상권 행사를 통한 손실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 별첨 8 >



서울보증보험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110-6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74
대표전화 02)3671-7000

문서번호 01 - 18

2001. 10. 8.

수 신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중, 박은정 귀하

참 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제 목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금 회복 계획에 대한 질의 회신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 경제2001-1001호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금 회복 계획에 대한 질의”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 불임참조

불 임 : 삼성자동차 관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회신 1부



대표이사 사장 박 해



담당 : 과장 추병관 (☎ 02-3671-7873)

F. 1875

삼성자동차 관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 1 : 법적조치 추진일정 및 계획

- 현재 효과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계획은 채권단 운영위원회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질의 2 : 구상권 행사 관련 답변 이유

□ 국정감사 답변 취지

- 국정감사에서 의 구상권 행사 관련 답변은 삼성의 기본합의서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대응 관련사항이 아니고, 합의사항 이외의 공장지가 매각 등에 관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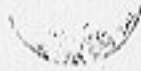
□ 법률자문 배경

- 서울보증은 삼성차 관련 손실금액 중 자산매각대금 및 삼성과의 합의 금액을 회수하고도 부족한 유동성 6천억원에 대하여 2000.12 공적자금을 신청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 2001.5.16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동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시, 삼성차 관련 유동성 부족금액 6천억원은 삼성자동차의 대주주 등에 대하여 서울보증이 추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예금보험공사 및 서울보증이 복수의 범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삼성과의 합의금액 이외에 삼성자동차 대주주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구상권 행사는 어렵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 법률자문 회신 내용 (기본합의서의 이행과는 별도의 사안임)

- 주식회사 주주는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질뿐이므로 삼성자동차 대주주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법률적 근거가 없음
- 삼성자동차에 대한 법원 정리계획 확정으로 자산매각대금 이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추가적인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음



삼성차채권단, '26일까지 채무변제 최후통첩'

<별첨 9>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오는 26일까지 삼성그룹 이사회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2조원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23일 "이달초 채권단회의를 열고 삼성에 26일까지 변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일종의 최후통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측이 채권단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26일 이후 적절한 시기에 채권단회의를 열어 법적조치를 위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이미 법적조치를 위한 실무검토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하이닉스 문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후의 수단인 법적조치는 되도록 자제하려 했으나 현재로서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채권단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에앞서 이달초 보낸 공문에서 삼성측이 지급키로 약속했던 2조4천500억원 가운데 보증보험이 담보주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회수한 8천10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미지급이자를 모두 갚을 것으로 요구했다.

nadoo1@yna.co.kr

(끝)

송고일 : 20011123

삼성차 채권단 "내주중 채권단회의 개최"

<별첨 10>

제소여부 최종결정..올해중 소송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삼성차 채권단은 최후통첩시한인 26일까지 삼성그룹이 채무변제에 대한 응답을 해오지 않은 데 따라 다음주중 의견을 최종 조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27일 "채권단이 삼성차 부분과 관련해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26일까지 최종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삼성측은 응답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다음주중으로 한빛은행과 함께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소송가액이 1조7천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초기 소송가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단회의에서 제소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소송을 대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가액을 줄이는 문제 등을 포함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달초 삼성측에 공문을 보내 당초 지급키로 약속했던 2조4천500억원 중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회수한 7천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미지급이자를 모두 갚을 것을 요구했었다.

nadoo1@yna.co.kr

(끝)

송고일 : 20011127

"올해내 삼성상대 소송" <서울보증보험사장>

<별첨 11>

중기.개인상대 보증보험 영업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올해중에는 삼성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장은 "삼성치 문제는 삼성측이나 우리 채권단이나 한치도 알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되도록이면 소송전에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판결전에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지난 7월말 삼성과 채소전 화의절차가 결렬된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9.11테러사태가 발생, 국내외 경제여건이 워낙 불투명해져 소송을 미뤘다"면서 "하지만 더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사장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보증업계가 대기업위주로 영업을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영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과 개인의 비중을 90%수준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노력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adoo1@yna.co.kr

(끝)

송고일 : 20011127

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 주식 해외매각 추진"

<별첨 2>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5일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기준이 마련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의 해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상장안 마련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하고 "상장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해외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치 부채 처리를 위해 채권단에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가운데 188만주를 떠안았으며 이중 116만5천주는 이미 자산유통화증권(ABS)으로 발행해 7천479억원을 회수했고 71만5천주는 아직 보유하고 있다.

박 사장은 "상장 기준이 연내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삼성측과 맺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주당 70만원을 변제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박 사장은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크레디트뷰로(개인신용평가) 사업의 경우 지분 구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달라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크레디트뷰로는 3천900만건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의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적당한 파트너를 물색해 향후 이 사업에 꼭 진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sungje@yna.co.kr

(끝)

송고일 : 20030825